

성경 역본의 어휘개념지도와 의미장

나 연 서
(숙명여대)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성경 역본에 사용된 명사의 어휘개념분포를 살펴보는 것이다. 형태소분석기로 성경에 사용된 명사 어휘를 추출한 후 어휘의미망으로 분석하고 의미 계층에 따라 어휘개념지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한다. 이 방법을 성경 4종의 구약 오바다에 적용해서 어휘개념지도를 만들고 몇 가지 유형의 의미장을 만드는 활동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¹⁾의 모음집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각각이 전하는 특정 이야기가 있으며, 이야기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에도 차이가 있다. 그 어느 책보다도 깊은 역사를 가진 성경은 역사적 변화 속에서 어휘의 변화를 겪으며 개정되거나 다시 번역되어 왔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추후 성경 전체의 어휘를 살펴보게 된다면 성경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인간 구속 역사라는 주제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이수만 2011: 170).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인 원문에서 출발한 번역이기 때문이다. 원영희(2000: 91)는 한글 성경 27종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등가 변형을 연구한 결과, 단 한 구절만을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동일한 번역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같은 이야기를 전체로 하지만 성경마다 다른 문체와 어휘로 다양하게 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역본 간의 어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은 교육, 연구, 설교 등 성경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번역 방법에서도 형식적 등가와 역동적 등가의 차이를 보인다. 어휘 분석을 통해 번역 방법론에 따른 성경 역본 간의 어휘 차이나 번역 시기에 따른 어휘 차이 또는 같은 맥락의 어휘 표현 차이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휘개념지도를 통해 어떤 성경에 어떤 의미 계층의 어휘들이 사용되었는지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같은 의미 계열의 상위어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번역 교육이나 어휘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읽히는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각 2종의 오바다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2. 왜 성경책을 분석하는가?

세계 종교의 현재 상태(Zurlo, Johnson and Crossing 2021: 20-21)를 살펴보면, 종교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89%에 달한다. 그중 기독교 인구가 32.3%로 종교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무슬림, 힌두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따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신교 성경을 의미한다. 가톨릭 성경은 구약 46권, 신약 27권 총 73권이다.

〈표 1〉 세계종교인구 비율

세계 인구 (Global Population) 7,875,465,000명	비종교 인구(Non-religionists) 879,315,000명(11%)	
		종교 인구 (Religionists) 6,996,150,000명(89%)
		기독교(Christians) 2,545,579,000(32.3%)
		무슬림(Muslims) 1,926,115,000(24.5%)
		힌두교(Hindus) 1,073,619,000(13.6%)
		불교(Buddhists) 550,493,000(7.0%)
		중국민속(Chinese Folk Religionists) 471,103,000(6.0%)
		민족종교(Ethno Religionists) 269,949,000(3.4%)
		신종종교(New Religionists) 65,441,000(0.8%)
		시크교(Sikhs) 28,538,000(0.4%)
		유대교(Jews) 14,838,000(0.1%)

전 세계 종교 인구 비율이 89%에 육박한다는 것은 10명 중 9명은 종교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된다. 9명 중 기독교를 가진 사람은 3~4명이 될 것이며, 2~3명은 무슬림, 1~2명은 힌두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이 가장 많이 출판되며 꾸준히 읽히러 가는 것을 암시한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전파, 성경의 보급, 그리고 한글의 생존에는 번역이 큰 역할을 했다. 1882년에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나왔고, 1911년에 순 한글로 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 1911년은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1910년의 바로 다음 해로 우리말의 존재가 위태롭던 시기였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이겨내고 한글 성경이 완성되어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이 보급되면서 한국어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기독교 전파와 한글의 역사를 정리한 최현배(1962: 70-76)는 한글 덕분에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고, 기독교 전파 덕분에 유교 사상에 갇혀 떨치받던 한글이 전파될 수 있었으며, 일본 강점기 한글 말살 정책에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글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글과 기독교가 서로에게 준 ‘공

2) 한국갤럽(2021)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현황도 있다. 198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인 종교 현황은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로 개신교가 가장 높다. 전체 종교인 비율은 40~50% 내외로 꾸준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조사는 제주 제외 전국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5,182만 1,669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의 약 0.003%를 조사한 결과가 된다.

덕’을 인정하여 마땅하다고 한다. 전택부(1980: 142-143)는 한글 성경을 한국 국어사의 가장 커다란 사건으로 칭한다. 책의 부피나 판매 부수 면에서도 성경은 상하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국에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고, 오늘날 한글문화의 주역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영어의 표준화와 발전에서도 성경의 영향은 상당했다. 라틴어가 종교적 목적에 적절하다는 이유로 라틴어로 쓰인 성서를 사용하던 시기에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는 민중을 위한 영어 성경을 완성하게 된다(김동혁 옮김 2018: 174-175). 이후 여러 번역본이 나오며 대중이 영어를 배우고 철자와 문법이 표준화되며, 영어의 세계화를 이끌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번역 작업으로 대중화될 수 있었으며, 언어의 유지와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도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한 번의 번역으로 완결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목적에 따라 다시 번역되거나 보완,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에 따르면 성경은 2020년 8월 기준 총 7,359개 언어 중 3,435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는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³⁾이라고 한다.

대한성서공회(Korean Bible Society)⁴⁾도 현재 한국 교회의 예배용 성경인 개역개정(1998)의 개정 필요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수년간 언어의 변천에 따라 수차례 개정을 해왔으며, 개역개정이 나온 지 23년이 지난 지금, 언어와 성서학의 변화에 따라 다시 개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끊임없이 다시 번역되거나 개정 작업을 통해 다시 출간되는 주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많은 서적이 번역본 출판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절판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성경 번역과 개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3) 20년 안에 전 세계 6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로 1,200개의 성경을 번역하려는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3년째 진행 중이다. 2021년 1월 기준 80개 번역이 완성되었고, 312개가 진행 중이며 808개가 대기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역개정은 2021년 개정 작업을 발표했으며 2035년까지 개정을 마치고 출간할 예정이다.

4)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회원국으로 1895년 11월 설립된 후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그리고 반포하는 성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한국에서 성경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단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원문연구소(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⁵⁾의 설립 목적이나 역할을 보더라도 성경과 번역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관계가 있다. 설립 이후 현재 2021년 4월까지 발표된 논문 624편의 제목만 보면 번역이나 translation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논문만 296편 정도로 많다. 성서 논문의 47% 이상이 번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과 번역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성경은 번역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연구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도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번역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번역이 진행될 것이다. 성경 어휘를 분석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 하는 것은 향후 성경 번역 분야뿐만 아니라 성경 간의 비교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성경을 통한 영어, 한국어 교육에도 어휘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어휘를 통한 번역 차이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어휘를 의미 특성별로 범주화해서 의미장을 만들 수도 있으며, 어휘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성경 간의 어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직관력도 제공할 것이다.

성경은 66권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므로 이 모든 어휘를 분석하는 일은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번역 시기와 번역 방법이 다른 영어 성경 2종과 한글 성경 2종을 분석할 예정이므로 총 264권의 어휘를 분석하는 것이다. 많은 어휘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휘개념지도로 체계화할 것인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며, 구축된 방법으로 성경 4종의 오바다 어휘를 예로 분석한다. 성경 전체를 분석한 결과는 추후 연구에서 제시될 것이다.

5) 성경원문연구소는 대한성서공회가 1996년 5월 설립한 연구소로 한국의 성서 원문 연구와 번역학 그리고 성서학의 발전을 도모했다.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스어와 같은 성서 원어뿐만 아니라 성서해석학, 성서본문사, 성서사본학, 성서번역학 등에 관한 국내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국내외의 성서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성경 번역의 개선할 점들도 연구해서 개정이나 새로운 번역에 반영할 자료를 정리해가고 있으며, 세계 성서 번역 이론과 실제 번역 이론 및 실제 동향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분석 방법과 도구

3장에서 먼저 분석 텍스트가 될 성경 종류에 대해 개괄하고, 분석 도구가 될 형태소분석기와 어휘의미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어휘의미장의 체계를 알아보고, 뒤이어 의미장에 대해 개괄한다. 그런 다음 영어 어휘의미장과 한국어 어휘의미장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할 어휘에 대해 논한다. 분석할 어휘 추출 방법을 논하면서 형태소분석기에 대해 살펴보고, 이렇게 추출된 어휘가 어휘의미장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3.1 분석 텍스트

분석 텍스트는 개역개정(1998), 우리말성경(2014), NASB(New American Standard Bible, 새미국표준성경 2020),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새국제역 2011)로 성경 4종이다. 이 4종의 성경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역사를 배경으로 번역되어온 성경의 어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개념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어휘개념지도는 계층성을 띠게 되므로 각 어휘가 위치한 의미 계층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계층에 나타나는 상위어를 토대로 목적에 따른 의미장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성경에 사용된 같은 의미 계열의 어휘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나아가 번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번역과 언어의 특징을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분석 텍스트가 될 성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경 번역의 지배적인 번역 방법론은 유진 나이다(Eugene Nida)와 그의 동료 찰스 테이버(Charles Taber)가 발전시킨 형식적 동가(Formal equivalence)와 역동적 동가(Dynamic equivalence)라는 개념이다(Nida and Taber 1969: 22-32). 동가의 개념에 따라서 분석 대상 성경은 형식적 동가를 보이는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6)과 Lockman Foundation의 NASB⁷⁾, 역동적 동가를 보이는 두란노의

6) 개역개정은 다양한 성경을 참고하여 완성됐다. 신약은 그리스어 신약(1881)과 그리스어 신약(1923), 구약은 히브리어 구약(1908-1926)이 사용되었고, 그외 영어 성경 ERV(1881-1885), ASV(1901년), KJV(1611)와 한문 대표자역 문리성경과 개역 일본

우리말성경⁸⁾과 Biblica의 NIV⁹⁾이다.

NASB는 1971년에 ASV(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의 개정판으로 출간되었다. 개정이지만 새로 발견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원문으로 사용했으며, 문체도 원문의 어순을 따르고 있다(김동혁 옮김 2018: 186). 1997년, 1995년, 2020년에 걸쳐 고어 사용을 현대 영어로 바꾸는 개정작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형식적 등가의 번역 표준을 유지했다고 서문에 밝힌다. 고전 문학적 영어 스타일과 정확한 번역으로서 현재까지도 많이 읽는 영어 성경 중의 하나로 평가한다.

NIV는 영어권 국가인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개혁교회가 연합하여 번역한 것으로 1978년에 출판되었다. 성경 저자의 사상에 충실한 번역을 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단어의 일대일 번역 이상을 위해 애썼다는 서문을 통해 형식적 등가 이론과 역동적 등가 이론의 사이에서 번역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NIV는 KJV(King James Version 1611)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이 되었고, 성 중립 표현¹⁰⁾ 등의 수정을 거쳐 2011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정확성(accuracy)과 가독성(readability)을 향상한 번역이기에 교단이나 신학교에서 공식 성경 번역판으로 채택되었다(김동혁 옮김 2018: 191).

개역개정(1938)을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몇 차례 개정한 성경이다. 더 읽기 편하게 개정했다고는 하나 고어, 문체 등의 번역 스타일로 인해 다소 읽기 어렵다는 평이 있다. 그러나 개역개정은 출판 이후 현재까지 한국

어 신약전서, 그리고 라틴어, 독일어, 불어, 일본어 등의 번역 성경들이 사용되었다고 한다(김래용 2012).

7) 구약은 루돌프 키텔(rudolf Kittel)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신약은 네슬레(Nestle)의 노뭉 테스트아멘툼 그라이케(Novum Testamentum Graece)를 참조하였다(The Lockman Foundation).

8) 구약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신약은 노뭉 테스트아멘툼 그라이케, 영어성경으로 KJV(1970년)와 NIV(1984년)를 참조하였다(두란노닷컴).

9) 구약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칠십인역(Septuagint), 불가타(Latin Vulgate) 등, 신약은 노뭉 테스트아멘툼 그라이케와 칠십인역을 참조하였다(NIV 2011 서문).

10) 성 중립 표현을 사용한 번역 방법은 용인할 수 있는 성경 번역의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미국의 보수 침례교단은 공식적인 사용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다(허명수 2014: 307-308).

교회의 예배용 성경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두란노의 우리말성경은 원문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쉬운 성경을 목표로 번역한 성경이다.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의 한글맞춤법을 원칙으로 지키며, 통일 시대를 염두 해 북한성경(성경전서 1990)도 참조했다고 한다. 더 쉽고 대중적인 용어를 사용해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우리말성경은 번역의 정확성도 높고 문장이 자연스러워 가독성이 높다는 평이 있다.

3.2 분석 이론

3.2.1 어휘의미망

어휘의미망이란 의미론적 관계에 따라 어휘를 그룹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자’와 ‘다리’의 관계를 보면, ‘다리’는 ‘의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의자’는 ‘가구’와 상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다리’는 ‘가구’와 상위 관계가 될 수 없다. 의자 종류에는 ‘다리’가 있지만 모든 가구 종류에 ‘의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다리’라는 어휘는 이런 의미 관계를 포함한 계층구조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관계는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되며 계층적 구조로 이어진다. ‘다리’는 다음과 같은 동의어 집합을 가진 의미 계층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 (1) 신체의 일부인 다리
- (2) 구조물의 교량인 다리
- (3) 장치나 기구의 지지물인 다리
- (4) 복장의 부분인 다리
- (5) 관계의 중간 역할인 다리

(1)~(5)의 각 ‘다리’는 다른 상위어를 갖게 된다. (1)의 ‘다리’는 ‘몸 부위’라는 상위계층에 포함될 것이다. (2)와 (3)의 ‘다리’는 ‘인공물’이라는 상위계층을 공유할 수 있다. (4)는 ‘의류’가 상위계층에 포함될 것이다. (1)~(4)의 ‘다리’는 ‘개체, 실체’라는 더 넓은 의미의 상위 단계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5)의 ‘다리’는 ‘개체, 실체’의 하위라고 볼 순 없다. 이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므로 (1)~(4)와 다른 상위 단계를 갖게 된다.

이런 어휘 개념을 토대로 계층구조를 분류해서 어휘개념지도를 형성하고, 어휘개념지도를 사용해서 목적에 맞는 의미장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간과 관련된 의미장을 형성하고 싶다면 인간과 관련된 계층에 있는 어휘만을 모아서 분류하는 방식이다.

3.2.2 의미장

의미장(Semantic field)이란, 하나의 상위어 아래 의미상 밀접하게 연관된 낱말들의 집단(Lehrer 1974: 1, 임지룡 1992: 76에서 재인용)을 말한다. 언어 사회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그 형식과 의미에 따라 체계적으로 묶어서 범주화할 수 있다. 각 어휘가 가진 공통 의미는 상위 범주가 되고, 개별 의미는 하위 범주가 되어 하나의 의미 범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의미 범주는 하나의 의미장¹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의미장은 하나의 의미자질을 바탕으로 범주를 만들어서 그 체계 속에서 어휘를 이해하려는 장이론(field theory)의 하나이다.

장이론이란 의미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이론(조남호, 윤석민 2012: 55)으로 독일 언어학자 트리어(Jost Trier)가 장이론을 창시하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장이론의 근원은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의 언어관이라고 볼 수 있다(윤평현 2013: 61). 훔볼트는 인간 정신이 언어 속에서만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정신은 필연적으로 언어를 통해서만 파악되어야 한다고 봤다(이성준 1999: 207-236).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언어가 하나의 기호체계이며,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는 모두 연관되어 기호체계 속에서 계열적-결합적 관계에 의해서만 언어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임지룡 1992: 80). 계열 관계는 서로 대치될 수 있는 어휘로 한 언어의 구조상 같은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어휘이다. 예를 들면, ‘장미꽃은 시들고, 다른 꽃은 피었다’라는 문장에서 ‘장미꽃’은 ‘민들레꽃’, ‘백합꽃’ 등 다른 꽃으로 대체가 가능한 계열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장미꽃은 ‘시들었다’, ‘피었다’ 등과 결합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끓었다’, ‘달렸다’ 등과는 결합관계를 맺을 수 없다. 언어의 구조를 결합-계열 관

11) 의미장이란 용어는 학자에 따라 낱말장(word field), 어휘장(lexical field), 의미장(semantic field), 개념장(conceptual field)으로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된다(Murphy 2003: 92-93; 임지룡, 윤희수 2008: 164-165).

계로 보았던 만큼 소쉬르는 현실 세계에서 공통점이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는 ‘형식과 의미’가 유사한 언어형식이 장을 이룬다고 보았다(신현숙 2001: 85).

의미장 이론은 우리나라에 1970년대부터 소개되기 시작해서 80년대 이후 한국어의 친족어, 감각어, 색채어, 공간어, 시간어, 온도어, 미각어, 촉각어, 요리어, 남해안 어촌 지역의 바다 생물어(홍기욱 2014: 13) 등의 다양한 의미장이 목적과 주제에 따라 활발하게 구축되었다. 문금현(2011)은 ‘기초어휘장’에 ‘신체어휘장’, ‘공간 개념 어휘장’, ‘시간 개념 어휘장’ 등으로 분류한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을 만들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어휘 교육 방안도 제시했다.

장이론은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으며, 단순한 분석 방법론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의미연구 분야에 두드러지는 업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어휘 의미 체계에 대한 이해는 해당 언어 사용자의 의식이나 문화적 배경 등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문금현 2011: 9)가 될 수 있으나, 의미장의 설정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설정한 의미장에 속하는 어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다는 이론적 한계가 있다(신현숙 2001: 92). 임지룡(1992: 98-125)은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선정된 고빈도어를 주관적 방법에 의해 의미 분야를 절충하여 일상언어 생활의 80-90%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추정하는 기초어휘를 제시한다. 즉, 의미장은 장을 구축하는 기준이나 범위가 언어사용자의 경험이나 인지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도 있고,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이런 특징이 의미장 구축의 한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휘의미망을 바탕으로 한 어휘개념지도를 이용하면 의미장 범위 설정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의미장을 단시간에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축된 의미장은 번역과 관련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같은 계열 관계나 결합 관계에 있는 어휘를 참고하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어휘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의 글에 다른 의미 계열의 어휘가 포함되어 있거나 의미 결합 관계가 맞지 않는 맥락이 나타난다면 번역 오류가 될 상황을 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3.3 분석 도구

3.3.1 WordNet2.0

어휘개념지도를 만들기 위해 영어 어휘의미망은 WordNet2.0(이하 워드넷)을 사용한다. 198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워드넷은 심리학과 교수 밀러(George Armitage Miller)의 지도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Miller 1995). 워드넷은 지식이 인간의 뇌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며 처리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작했으나 인지심리학보다는 자동 텍스트 분석 및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과 같은 자연어처리와 지식공학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사용되었다¹²⁾. 자연스러운 인간 언어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미와 지식의 처리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정보를 어휘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워드넷은 개념을 보여주는 최소 단위를 동일한 어휘 의미(word meaning)를 갖는 동의어집합(Synset)¹³⁾으로 규정한다. 각 동의어집합은 상위어와 하위어의 계층관계로 나타난다. 상위어는 총체적이고 보편적 의미자질을 하위어에 물려주고, 하위어는 상위어를 구별해 줄 자질을 적어도 하나 이상 추가하여 갖는 방식이다(윤애선, 황순희, 이은령, 권혁철 2009: 93-94).

워드넷은 한국어 어휘의미망 구축의 참조모델이 되었으며(이인근, 최기선, 황도삼, 함영균 2014: 193), 다양한 언어 어휘의미망 연구의 출발이 되었다.

3.3.2 KorLex1.5

한국어 어휘의미망인 Korlex1.5(이하 코렉스)는 워드넷을 참조하여 2004년부터 구축되었다. 약 13만 개의 동의어 집합과 약 15만 개의 어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연어처리와 지식공학 시스템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윤애선 외 2009: 92-98).

글로벌 워드넷(Global WordNet Association)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80개의 다국어 어휘의미망이 구축되어 있다. 한국어 어휘의미망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 워드넷의 명사를 대역한 KorLexNoun1.0을 공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내용이 범주를 추가해 왔다. 코렉스는 국내 대표적인 어휘의미망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은 수의 의미/개념과 어휘 의미를 갖고 있다¹⁴⁾.

한국어와 영어 어휘의미망의 품사별 구축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워드넷과 코렉스의 품사별 구축 크기

품사	어휘형태		동의어집합		어휘의미	
	워드넷	코렉스	워드넷	코렉스	워드넷	코렉스
명	114,648	89,125	79,689	90,134	141,690	102,358
동	11,306	17,956	13,508	16,923	24,632	20,133
형	21,436	19,698	18,563	18,558	31,015	20,905
부	4,669	3,032	3,664	3,651	5,808	3,123

워드넷과 코렉스 둘 다 명>형>동>부의 순서로 명사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어휘의미망에서 명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명사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그러므로 명사가 가장 먼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 의미 개념화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바로 일관성일 것이다. 코렉스는 일관성을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의미 세분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범용적 지식을 구성한다는 개발 원칙에 따라 버전 확장 과정에서 고어, 지방어, 특수용어 등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는 제외되었다(윤애선 외 2009: 98-101).

12) 밀러는 언어학의 인지 혁명을 일으킨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등을 토대로 인지 과학이 개념화된 1956년 9월 11일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심포지엄에서 실형 심리학, 이론 언어학,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넘어선 학제 간 연구의 태동을 직감한다(Miller 2003). 이후 인지과학 연구가 본격화되어 현재까지 이른다.

13) 어휘의미망에서는 Synonym set을 ‘Synset’ 또는 ‘신셋’, 어휘 의미(word meaning)는 줄여서 ‘어의’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글에서는 축약형태의 신셋이나 어의 대신에 직관적으로 의미를 알 수 있는 ‘동의어집합’과 ‘어휘 의미’로 쓰기로 한다.

14) 대표적인 국내 어휘의미망은 한국어 명사워드넷, 세종전자사전, U-win 등이 있으나, 현재 가장 많은 어휘를 포함하고 있고 접근성이 좋은 어휘의미망으로 KorLex1.5를 뽑을 수 있다. 기타 국내어휘의미망 크기에 대한 정보는 윤애선 외(2009: 94) 참고.

15) 시정근(2005: 150-151)은 어휘의미망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여러 인접 학문의 총체적 연구 결과로, 언어자원, 전자사전, 전산학적 프로그램 및 언어학자들의 종합작품이라고 한다. 비록 한국어 어휘의미망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한국어 어휘의미망이 영어 어휘의미망에 근간으로 구축된 것이므로 다국어 어휘의미망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언어와 관련된 학문이란 실제 언어생활을 토대로 하므로 어휘의미망의 명사가 많다는 것은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명사 비중이 높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 어휘 중에서도 지역명, 인명, 고어 등은 코렉스에서 검색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지역명과 인명은 어휘의미장의 분류단계와 별도로 지명과 인명이라는 범주를 설정해서 분류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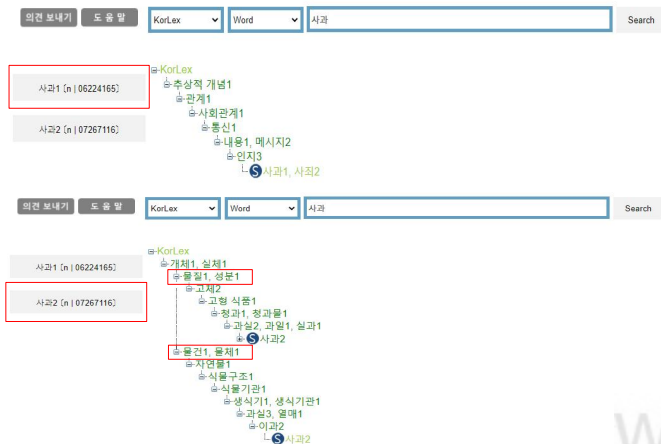
지명과 인명 외에도 어휘의미장에 수록되지 않아 검색되지 않는 어휘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연결된 우리말샘에서 비슷한말이나 상위어를 참고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멸절’이란 단어는 코렉스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우리말샘에서 ‘멸절’을 검색하면 비슷한 말로 ‘멸망’과 ‘멸몰’이 있다. 다시 코렉스에서 ‘멸망’과 ‘멸몰’을 검색하면 ‘멸몰’은 없지만 ‘멸망’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멸절’의 의미 계층으로 ‘멸망’의 의미 계층을 사용하기로 한다. 영어 성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시소러스 사전(Thesaurus dictionary)을 참고한다.

지금까지 설정한 의미 개념의 일관성을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지명과 인명은 어휘의미장의 분류단계와 별도로 범주를 설정한다.
2. 어휘의미장에 없는 어휘는 우리말샘과 시소러스 사전의 비슷한말, 상위어 등 어휘의미장에서 검색 가능한 어휘의 의미 계층을 사용한다.

다음은 코렉스에서 ‘사과’를 검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 창이다.

그림 1 '사과'의 코렉스 검색 화면



단어를 검색하면 계층구조로 상위어 집합을 보여준다. 검색한 단어의 결과는 화면 좌측 창이며, 우측은 검색 결과 의미 계층 구조를 보여준다. ‘사과’는 두 가지 결과를 보여준다. ‘사과’와 동음어면서 다른 뜻을 가진 동의어집합이 ‘사과1’, ‘사과2’와 같이 어휘와 숫자 조합으로 왼쪽 창에 나타나게 된다. ‘사과1’, ‘사과2’ 옆에 [n/06224165] 형태로 나타나는 기호 중 n은 품사를 나타내며, 숫자는 고유한 색인번호이다.

‘사과1’은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이며, ‘사과2’는 실체가 있는 ‘과일’을 의미한다. 한 어휘가 여러 가지 의미일 경우 이렇게 여러 개의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사과2’는 1단계 ‘개체, 실체’의 아래 2단계에서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이럴 경우 2단계 개념인 ‘물질, 성분’과 ‘물건, 물체’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문제는 맥락에서 해당 어휘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엄마가 사과를 깎아 주셨다’라고 한다면 먹는 음식 ‘사과’일 것이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라고 한다면 열매 ‘사과’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항상 맥락에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휘와 개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도 하며, “테니스 문제(tennis problem)”처럼 테니스에는 테니스 채, 공, 선수, 코트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관련되지만(Miller 1998, 윤애선, 황순희, 이은령, 권혁철 2009: 96-100에서 재인용), 이를 계층성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 의미 관계가 다양하고 풍요롭지만 일부는 불투명하고 부분적이라는 점, 영어와 한국어 간의 차이에서 생긴 개념 공백이나 어휘 공백은 어휘의미장의 장점이면서도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 한 어휘에 다양한 동의어집합과 어휘의미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파악하도록 한다. 맥락에서의 의미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계층들이 비슷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계층이 더 깊지 않은 어휘를 채택하기로 한다. 계층이 깊을수록 의미가 더 세부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더 적은 계층을 가진 광범위한 의미의 보편적인 어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6) 해당화면은 검색조건이 Word로 되어 있다. 검색조건을 Synset으로 바꾸면 해당 단어의 색인번호를 입력해서 검색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성경 번역본에 사용된 명사 어휘개념지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실제 분석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연구가 진행되면 더 구체화 될 것이다.

3.3.3 워드넷과 코렉스의 어휘

<표 3>에서 제시한 어휘의미망의 명사와 동사 계층별 동의어집합 수를 보면, 1~3단계보다 4~10단계에서 주로 확장된다. 6단계>7단계>8단계>5단계의 순서로 명사 어휘 개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 단계의 어휘들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의미 크기가 작고 구체적인 어휘 의미가 분포하는 층위이기 때문이다. 1~3단계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 분포한다. 명사는 17단계까지 세분화해서 의미 계층을 이루며 동사는 최대 13단계로 세분된다. 명사가 동사보다 상대적으로 깊은 계층을 이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떤 어휘를 개체, 추상체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애선 외(2009)는 코렉스가 이런 본질적인 한계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지속적인 보완으로 기계번역 성능 개선에도 활용될 예정이고, 자연어처리, 지식공학, 음성공학, 언어학, 심리학, 감성공학, 뇌공학 등 사용할 수 있는 학문 분야도 광범위하고 실용 시스템 활용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이제 어떻게 대상 텍스트에서 명사를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자의 언어 직관으로 한 문장씩 보면서 명사에 해당하는 어휘만 따로 분류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는 여러 명의 연구자가 공동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명사를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규칙이 없는 한 일관성 없는 작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휘의 품사를 태깅하는 형태소분석기를 분석 도구로 사용한다.

<표 3> 워드넷과 코렉스의 어휘 의미 단계에 따른 동의어집합 수

계층	워드넷명사	코렉스명사	워드넷동사	코렉스동사
1단계	9	9	554	600
2단계	158	157	3,210	3,864
3단계	1,307	1,653	3,819	4,896
4단계	4,489	6,033	1,598	2,040
5단계	10,297	13,129	1,598	2,040
6단계	17,536	19,236	737	985
7단계	15,336	18,079	363	462
8단계	12,225	13,802	146	180
9단계	7,605	8,053	41	50
10단계	4,793	4,714	41	44
11단계	2,501	2,305	25	30
12단계	1,444	1,256	11	11
13단계	852	733	1	2
14단계	477	429		
15단계	415	346		
16단계	206	164		
17단계	39	36		
계	79,689	90,134	13,508	16,923

3.3.4 형태소분석기

형태소 분석기란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원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형태소 분석을 통해 품사와 함께 출력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형태소분석기라고 한다.

형태소분석기는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많이 이용된다. 형태소 분석 후 구문 분석과 의미 분석을 거쳐 기계번역과 같은 자연어처리 분야에 응용되는 것이다. 모바일 자동번역기 개발을 위해 경량화된 고속의 형태소분석기(여상화 2009), 딥러닝 모델과 형태소분석기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 구축(이종원, 김태현, 최광남 2020), 소셜 빅데이터 대상 키워드 추출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형태소 분석 규칙 추가(유양우, 김현규 2020) 등 형태소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서 형태소분석기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형태소분석기에 검색 텍스트를 입력하면 사전 정보를 토대로 분석 후, 품사를 태깅해서 결과물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것은 나 여호와와의 말이다’를 텍

스트로 입력하면, ‘이것/대명사 + 은/보격조사 + 나/대명사 + 여호와/일반명사 + 의/관형격조사 + 말/일반명사 + 이/공정지시사 + 다/중결어미’와 같이 형태소를 분석해서 품사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형태소분석기를 이용한 분석은 말 그대로 ‘형태소’ 분석이다. ‘하나님’을 검색했을 때 ‘하나님’을 한 개의 명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일반명사 + 님/명사과생접미사’와 같은 형태로 분석하게 된다. 이런 어휘는 하나의 명사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고유명사나 신조어 추출의 어려움(유양우, 김현규 2020: 146)은 형태소분석기의 본질적인 문제이므로 분석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형태소분석기는 KAIST의 한나눔, 서울대학교 꼬꼬마, 코모란(KOMORAN), 카카오의 Khai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엑소브레인(Exobrain) 등이 많이 사용된다. 보고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엑소브레인 언어분석 API를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엑소브레인은 현재 ‘한컴오피스 2020’에 탑재되는 등 이미 상용화가 이뤄진 인공지능으로 언어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언어모델 기술, 질의응답 기술 등도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발음평가, 이미지 인식, 동영상 인식, 대화처리 기술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언어 분석 기술은 문어체와 구어체를 의미 최소 단위로 분리해서 품사를 태깅하는 형태소 분석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연어처리 관련자나 개발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모 버전도 제공하고 있다. 데모 버전에서는 형태소 분석뿐만 아니라 구문분석 결과, 의미역 인식 결과도 함께 볼 수 있다. 대량 분석을 하려면 OPEN API Key를 발급받아서 형태소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OPEN API 인 만큼 Key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나, HTTP, JASON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형태소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형태소분석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그중 가장 접근성이나 결과가 우수하고, 데모 버전도 깔끔하게 시각화되어 있는 것이 엑소브레인이라는 판단 하에 이 도구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영어 형태소 분석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보다 간단하다. 한국어는 교착어로 한 단어에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복합명사를 구성하거나, 체언이나 용언에 접사가 붙기도 하고, 조사와 어미가 결합하기도 하는 복잡한 구성이기 때문

에 형태소분석기가 이를 역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형을 복원할 때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는 굴절어로 형태소 분석의 단위가 단어가 되어 The/DT + Lord/NNP + has/VBZ + spoken/VBN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출력된다.

영어 형태소분석기는 온라인에서 바로 결과물을 보여주는 툴¹⁷⁾도 있지만 짧은 문장 정도만 분석이 가능하고 오류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 영어 형태소분석기도 소프트웨어¹⁸⁾를 설치해서 사용하면 안정적으로 대량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다.

영어 형태소분석기로는 데모 버전도 보기 좋게 잘 되어 있고, 최신 업데이트도 잘 이뤄지고 있는 스탠자(Stanza)를 사용하기로 한다. 스탠자는 스탠포드 대학의 Stanford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Group)에서 만든 Python 자연어처리 도구로 66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분석 패키지이다(Qi, Zhang, Zhang, Bolton and Manning 2020: 1). 스탠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대량 텍스트 검색 결과를 웹상에서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과물을 복사해서 편집하는 건 불가능하다. 명사만 추출하려면 편집이 가능해야 하므로 Stanza의 형태소분석기 프로그램인 Stanford PosTagger를 설치해서 사용한다.

4. 분석

4.1 분석 절차와 분석 실제

지금까지 어휘개념지도 구축 방안과 분석에 사용할 도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순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7) Morphological analysis online tool, Language Grid Playground 등이 있다.

18) Stanza, Polyglot, Catvar 2.0, XTAG 등이 있다.

〈표 4〉 어휘개념지도 구축을 위한 분석 순서

순서	분석 내용
1	각 성경 역본을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품사 태깅한다.
2	태깅한 품사 중 명사에 해당하는 어휘만 추출한다.
3	추출한 어휘를 어휘의미망으로 의미 계층을 정리한다.
4	상위 개념이 같은 어휘끼리 묶어서 어휘개념지도를 구축한다.
5	어휘개념지도를 바탕으로 의미장을 구축한다.

이렇게 정리된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성경 중에 짧은 책으로 사전 분석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오바다는 1장 21절로 구성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에돔이라는 나라에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서이다.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서 각각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이 파생하는데, 이 두 나라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며 원수관계로 남는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은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길 바라며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상징이 된다. 에돔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만, 결국 모든 나라에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오바다를 형태소분석기로 품사를 분류한 후 전체 어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타입/토큰 비율(Type/Token Ratio)¹⁹⁾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어휘 차원의 텍스트 언어 수준 검증은 텍스트에 사용된 타입/토큰 비율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 비율을 통해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풍성함(lexical richness)을 가늠해 볼 수 있다(Laufer and Nation 1995: 309). 토큰이란 텍스트에서 사용된 개별 어휘 개수를 모두 나타내며, 타입이란 중복을 제외한 어휘 개수로 같은 어휘가 중복 사용된 경우를 1회로 계산하는 것이다. 타입/토큰 비율이 낮다면 텍스트에서 중복되는 어휘가 많다는 것이며, 타입/토큰 비율이 높다면 중복 어휘가 적어 새로운 어휘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2019)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언어 수준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타입/토큰 비율이 낮을수록 텍스트의 난이도가 낮아지며, 독서하기에 용이하다고 한다. 고1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이용훈, 이규형, 김하영(2015)의 연구를 인용하며, 출판사별 고1 영어 교과서의 타입/토큰 비율이 20~28% 정도로

19) 타입과 토큰 분석은 Antconc 3.5.8을 사용한다.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30% 정도의 타입/토큰 비율은 독서 용이성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다. 오바다의 타입/토큰은 다음과 같다.

〈표 5〉 오바다 전체어휘 타입/토큰 비율

텍스트	타입	토큰	타입/토큰비율
개역개정	283	852	33.2%
우리말성경	285	944	30.2%
NASB	244	629	38.8%
NIV	239	596	40.1%

타입/토큰 비율에 의하면, 개역개정은 새로 나온 어휘가 33.2%, 중복 어휘가 66.8%이다. 우리말성경은 새로운 어휘가 30.2%이며, 중복 어휘가 69.8%이다. 개역개정은 어려운 한자어나 고어가 많아서 젊은 층이 읽기 어려운 성경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번역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휘 타입/토큰 비율을 고려해보면, 형식적 등가 번역에 해당하는 개역개정보다 역동적 등가 번역인 우리말성경이 중복 어휘가 더 많아 읽기가 더 쉬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NASB는 38.8%가 새로 나온 어휘이며, 중복 어휘가 61.2%, NIV는 40.1%의 새로운 어휘와 59.9%의 중복 어휘를 포함하고 있다. 타입/토큰 비율에 의하면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과 달리, 형식적 등가 번역에 해당하는 NASB가 역동적 등가 번역에 해당하는 NIV보다 중복 어휘가 많아 읽기 더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번역 방법론과 어휘 수준 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개별 특성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 또는 번역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번역이나 개정된 시기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개역개정이 1998년, 우리말성경이 2014년으로 우리말성경이 좀 더 최근에 출간되었으며, NASB는 2020년, NIV는 2011년으로 NASB가 더 최근 개정판이기 때문에 어휘 중복이 많을 수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경 번역이 더 읽기 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²⁰⁾는 것을 암시한다.

20) 17세기 이후 개정된 영어 성경의 경우 많은 수정을 하기 보다는 메시지 전달이 잘 되도록 고치는 정도였다고 한다(Del Corro 2003: 201). 대한성서공회도 개역한글(1961) 개정 시 더 읽기 편하게 개정한다는 원칙으로 37년만에 개역개정을 내놓게 되었으며, 신약전서 표준새번역(1993)도 개역한글판보다 더 쉬운 말과 현대어를 사

다음으로 명사의 어휘의미장 계층을 살펴보자. 성경 4종의 오바다에 쓰인 명사를 어휘의미장 단계에 따라 나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오바다의 명사 어휘의미장 단계

단계	개역개정 명사	개수
3단계	마음3 만국인1 방관2 보물1 부끄러움1 용사1 자손2 족속5	16
4단계	거주1 고난3 곳1 구원1 기업1 날12 들2 땅2 만족1 목시1 바위1 밤1 불2 위1 재물2 지혜1 화목1	34
5단계	가운데2 별1 별1 본래1 사람3 심판1 아래1 재앙1 지각2 지푸라기1 평지1 환난3	18
6단계	나라3 머리1 멸절2 백성1 변경1 사이1 산7 성산1 성읍1 수탈1 얼마1 제비1 중1 틈1	23
7단계	교만1 만국1 불꽃1 소식1 손1 여호와7 외국인1 이방인1 주1 패망1 포도1	17
8단계	거리1 도망1 말씀4 사자1 약조1 입1 포학1 함정1 형제2	13
9단계	도둑1 원수1	2
10단계	강도1 독수리1 성문2	4
합계		127
단계	우리말성경 명사	개수
2단계	민족4 재산2	6
3단계	굴1 동맹1 마음1 방관2 보물1 불행1 생활1 수수방관1 수치1 용사1 자손1 제비1 족속5 행실1	19
4단계	고난1 곳1 날12 두려움1 등지1 땅2 멸시1 바닥1 바위1 밤1 불1 식사1 약탈1 위1 지혜1 출신1 평원1 폭력1 행진1 화평1	32
5단계	가운데2 그루터기1 길1 말1 별1 본래1 사람18 영토3 재앙4 제압1 지각1 차지5 평지1 환난1	41
6단계	구원자1 국경1 나라1 머리1 멸망4 백성1 사이1 산7 성읍1 얼마1 유업1 은신처1 환상1	22
7단계	교만1 텃1 목1 불꽃1 서쪽1 여호와7 이방2 전멸1 파괴1 포도2 포로2 하나1 하나님1	22
8단계	말씀5 심부름꾼1 입1	7
9단계	도둑1 문1 학살1	3
10단계	강도1 독수리1 동생2 성문2	6
합계		158

용했다고 한다.

단계	NASB 명사	개수
2단계	everyone1 kingdom1 people1 treasure1	4
3단계	nation4 wealth2 battle1 dealing1 earth1 lot1 peacel shame1	12
4단계	day12 distress2 exile2 fire2 heart2 territory2 destruction1 misfortunel nest1 night1 placel plain1 possession1 report1 rock1 violencel	32
5단계	arrogancel disaster3 calamity1 clefts1 fork1 host1 star1	9
6단계	mountain5 mount2 ambush1 border1 bread1 city1 deliverer1 fugitive1 gatherer1 God1 head1 road1 survivor2 understanding1	20
7단계	foreigner1 Lord7 house5 men4 dwelling1 grape1 loftiness1 slaughter1 vision1	22
8단계	son2 flamel gleaning1 stranger1	5
9단계	brother2 gate2 envoy1 thief1	6
10단계	eagle1 robber1	2
합계		112

단계	NIV 명사	개수
2단계	everyone1 kingdom1 people4 treasure1	7
3단계	battle1 boast1 ground1 inheritance1 lot1 nation4 shame1 wealth2	12
4단계	ally1 company1 day10 deed1 destruction1 exile2 fire2 heart1 land2 misfortunel nest1 night1 pridel rock1 violencel	27
5단계	calamity1 cleft1 disaster5 message1 star1 trouble2	11
6단계	border1 bread1 crossroad1 deliverancel deliverer1 field1 friend1 fugitive1 head1 heights1 hill1 mount2 mountain4 picker1 survivor2 understanding1 warrior1	22
7단계	foothill1 foreigner1 grape2 home1 house5 Lord7 men2 slaughter1 sovereign1 town1 trap1 vision1	24
8단계	flamel stranger1	2
9단계	brother2 envoy1 gate2 thief1	6
10단계	eagle1 robber1	2
합계		113

오바다 명사의 의미 개념 분포를 보면, 개역개정은 4단계>6단계>5단계의 순으로 많고, 우리말성경은 5단계>4단계>6/7단계, NASB와 NIV는 4단계>7단계>6단계의 순으로 명사 어휘 개수가 많다. 앞서 <표 3>의 어휘의미장 명사 분포에서 4-8단계가 가장 많았던 것처럼 오바다에 쓰인 어휘도 그 단계의 어휘들

이 가장 활발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인명과 지명을 제외한 전체 명사 개수는 우리말성경이 158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역개정 127개, NIV는 113개, NASB는 112개였다. 언어 인지 심리에 관한 연구(Ji, Zhang and Nisbett 2004, 나연서 2017: 33에서 재인용)에서도 보여주듯이 서양은 명사 중심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동양은 동사 중심적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이런 사고방식은 언어 사용에도 반영된다. 이영옥(2000: 60)도 한국어와 비교했을 때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명사가 사용되는 환경이 빈번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또한 영어는 주어에 반드시 나타내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생략이 빈번한 언어라는 것도 영어 성경에서의 빈번한 명사 사용을 예상하게 한다. 이런 언어적 특징을 근간으로 영어 성경에서도 명사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한글 성경에서 영어 성경보다 더 많은 명사가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가 비록 명사 중심적 언어지만 한국어가 더 다양하고 많은 명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 실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영어 어휘 의미장의 명사 개수는 79,689, 한국어는 90,134였던 것에서도 차이를 알 수 있다. 영한 성경의 기본 어휘를 비교하며 이보림(2017: 13-17)은 창세기에서 ‘earth’라는 단어가 ‘땅, (천)지, 지(면), 세상, 천하, 흙, 들’로 대응되었고, ‘land’는 ‘땅, 토지, 나라, 육지, 곳, 지역, 지, 국’ 등으로 표현되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오바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disaster가 ‘파괴, 환난, 재앙’, nations는 ‘나라들 가운데, 민족’으로 1개의 영어 명사가 3개 이상의 한국어 명사로 대응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어의 접미사 ‘-하다’의 영향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ay’라는 동사가 ‘말씀+-하다’처럼 명사로 대응하는 경우도 한글 성경에 명사 개수가 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된다.

기독교적인 어휘를 살펴보자면, God는 ‘하나님’이나 ‘주’로 대응되며, Lord는 ‘여호와’에 대응된다. 하나님, 주, 여호와와 같은 7단계에 속해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God는 6단계이고, Lord는 7단계이다. 영어에서는 God를 Lord보다 상위 단계로 보는 것이며, 오바다에선 God보다 Lord의 사용이 더 많다.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 주, 여호와를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영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4.2 어휘개념지도

이제는 명사 어휘의 계층별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7〉 오바다 어휘 계층별 개수

1단계 분류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	NASB	NIV
개체, 실체(entity)	48	67	50	51
그룹, 무리, 집단(group, grouping)	15	15	11	12
사건, 사상(event)	10	14	8	9
상태(state)	1	3	1	0
소유, 소유물(possession)	4	4	4	6
정신, 정신적 특징(psychological feature)	19	17	15	13
추상적 개념(abstraction)	23	24	15	14
행동, 행위(act, human action)	7	14	7	7
현상, 사상(phenomenon)	0	0	1	1

어휘의미장은 총 1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바다에서는 10단계 어휘까지만 나타났다. 이론상 모든 계층의 개념도가 가능할 것이고, 이 단면도를 통해 성경 명사 어휘의 개념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워드넷과 코렉스는 최상위 노드인 1단계를 9개로 분류한다. 1단계 분류에 해당하는 오바다의 명사 개수를 보면 ‘개체, 실체’에 해당하는 어휘가 가장 많고 ‘추상적 개념’과 ‘정신, 정신적 특징’이 뒤따르고 있다.

성경 4종 중 개역개정의 오바다 명사 어휘개념지도는 <그림 2>²¹⁾와 같으며, 이 어휘개념지도를 바탕으로 임지룡(1992)²²⁾과 문금현(2011)²³⁾의 분류 유형을 참고하여 몇 가지 의미 분야를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1) 아래 주소에서 나머지 성경의 어휘개념지도 파일 확인이 가능하다. 추가되는 분석도 업로드 예정이다. <https://blog.naver.com/aquary27/222500924469>
- 22) 사람, 의식주, 사회생활, 교육 및 예체능, 자연계, 감각 및 인식, 동작, 상태에 관한 어휘 및 기타로 총 9개의 의미 분야를 바탕으로 구성된 의미장이다.
- 23) 기초어휘장(신체, 공간, 시간, 수 개념), 기본어휘장(공적 장소, 준-공적 장소, 존재, 관계, 행위, 계절/날씨/온도, 색채, 맛) 및 문화어휘장(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경조사, 명절 및 공휴일, 전통놀이, 정신문화, 국가이름)으로 세분된 의미장을 구성했다.

〈표 8〉 의미 분야에 따른 의미장

구분	(1) 사람에 관한 어휘			
	신체	사람일반	친인척	인명
개역개정	머리 손 입	원수 사자 백성 외국인 이방인 도둑 강도 만국인 용사 족속	형제 자손	드만 베냐민 야 곱 에서 오바다 요셉
우리말성경	머리 입	포로 백성 도둑 강도 심부름꾼 구원자 용사 족속	동생 자손	드만 베냐민 야 곱 에서 오바다 요셉
NASB	head	thief robber envoy deliverer fugitive gatherer men stranger survivor foreigner	brother son	Benjamin Esau Jacob Joseph Obadiah Teman
NIV	head	thief robber envoy deliverer fugitive friends men sovereign stranger survivor foreigner	brother	Benjamin Esau Jacob Joseph Obadiah Teman

구분	(2) 자연계에 관한 어휘			
	천체	지형	동식물	지명
개역개정	별	들 평지 산 성 산 바위	독수리 포도	가나안 길르앗 네겝 블레셋 사르 밧 사마리아 스바랏 시온 에돔 예 브라임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우리말성경	별	굴 평원 평지 바위 산	독수리 포도	가나안 길르앗 네겝 블레셋 사 르밧 사마리아 스바랏 시온 에돔 에브라임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NASB	star	earth plain mount mountain rock	eagle grape	Canaanites ²⁷⁾ Edom Ephraim Gilead Israel Jerusalem Judah Negev Philistine Samaria Sepharad Shephelah Zarephath Zion
NIV	star	ground mount mountain hill foothill rock	eagle grape	Canaan Edom Ephraim Gilead Israelite Jerusalem Judah Negev Philistine Samaria Sepharad Zarephath Zion

구분	(3) 행위에 관한 어휘			
	사건	행동	감정	사회관계
개역개정	멸절 패망 고난 재앙 방관 벌	거주 목시 도망 수 탈 심판 구원 교만	환난 부끄 러움 만족	약조 소 식 말씀
우리말성경	멸망 고난 재앙 유업 동맹 방관 행진	전멸 파괴 학살 약 탈 폭력 행실 교만 차지 제압 수수방관	환난 두려 움 멸시 불행 수치	말 말씀
NASB	battle dealing destruction disaster misfortune calamity	violence slaughter possession ambush exile report	distress shame	
NIV	battle disaster destruction misfortune calamity	boast deed deliverance violence slaughter exile	shame	message

(1)의 ‘신체’에 있는 어휘를 비교하자면, 개역개정은 ‘머리, 손, 입’, 우리말 성경은 ‘머리, 입’이 있다. 개역개정은 ‘손을 대다’라는 명사로 썼지만, 우리말 성경은 ‘손대다’라는 동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형태소분석기가 동사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NASB, NIV에는 손과 관련된 어휘가 없고 head만 있다. NASB는 loot(훔치다), NIV는 hand over(넘겨주다)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글 성경은 명사 ‘입’을 사용했지만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boast(자랑하다)라는 동사로 표현했다. 영어에서는 동사로 표현했지만 한국어에서는 명사를 이용해서 동사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1)의 ‘사람일반’이나 (3)의 ‘사건’ 어휘를 보면 한글 성경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지만, 영어 성경은 같은 어휘가 더 자주 보인다. 그러나 ‘행동’ 어휘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모두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NIV ‘사람일반’에 있는 friends를 보자면, 개역개정과 우리말성경에서는 ‘화목하던 자, 화평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NASB는 men at peace라고 표현했다. friend를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어휘개념지도를 바탕으로 의미장을 구성하면 어떤 사용자가 의미장을 구성 하더라도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텍스트별로 구성된 어휘를 한눈에 파악 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 어떤 성경이든지 시대나 문화 및 언어 변화에 맞춰 번 역과 개정을 반복할 것이므로 어휘를 의미별로 묶어 볼 수 있는 어휘개념지도 와 의미장은 객관적인 어휘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어휘를 통한 번역 교 육, 영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신학 교육이나 신학

27) Canaanites는 가나안족속이므로 지명이 아니지만 어휘 ‘족속’이 속해 있는 <그룹, 무 리, 집단-사람들>에 포함하기엔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지 명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NIV의 Israelite(이스라엘인)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적 해석을 위한 자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지금까지 형태소분석기와 어휘의미망을 사용해 성경 어휘개념지도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2장에서는 성경과 번역에 대해 언급했고, 3장에서는 분석 텍스트로 사용할 성경 4종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 도구인 형태소분석기와 어휘의미망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통해 어휘개념지도 구축 방법을 제시했다. 이 도구를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에 대해 언급하고, 어휘개념지도를 통해 파생할 수 있는 의미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구축한 방법으로 오바다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형태소분석기를 이용해서 오바다에 사용된 어휘의 품사를 분류했고 타입/도큰 비율로 전체 어휘 수준을 확인한 후, 명사만 추출해서 어휘의미망에 따라 단계별로 정리해보았다. 어휘의미망의 명사 분포가 4~8단계에 많았던 것처럼 오바다의 명사도 그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전체 명사 개수는 우리말성경>개역개정>NIV>NASB 순으로 많았다. 영어는 명사 중심적이고, 주어가 반드시 나타나는 언어이므로 명사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한글 성경의 명사 사용이 월등히 많았다. 한국어에 더 다양하고 많은 명사가 있으며 실제로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층별 개념에 따라 어휘를 분류해 보았다. 최상위 노드 1단계는 9개로 분류되며, 그중 개체, 실체에 해당하는 어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성경이라는 특성에 따라 인명이나 지명은 어휘의미망에 의한 단계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했다. 어휘개념지도는 성경에 사용된 어휘의 전체적인 단계와 상위 개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어휘개념지도를 바탕으로 몇 가지 유형의 의미장을 구성해 보았다. 의미장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의미 계열의 어휘를 모아봄으로써 각 성경의 어휘 사용 차이를 볼 수 있었고,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글 성경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어휘를 사용했으나 영어 성경에서는 비슷한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보았고, 영어 성경에

서는 한 단어이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명사로 대응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영어 성경보다 한글 성경에서 명사 사용이 많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의미장을 통해 특정 의미 계층의 어휘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표현도 볼 수 있었고, ‘행위’와 관련된 어휘는 4종 성경 모두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미장은 설정 기준이나 어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어휘개념지도를 이용하면 기준과 범위 설정에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성경을 통한 영어나 한국어 학습자가 꾸준한 점을 감안하면 의미장 구성으로 어휘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어 성경의 어휘와 영어 교재 어휘 비교 분석으로 성경을 통한 영어학습법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응용국어학적 측면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의 어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회자 설교나 신학대학의 성경 연구 분과 학문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어휘를 근간으로 한 성경 대조를 통해 번역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어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매우 방대한 집합이므로 적절한 기준에 의해 어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면, 성경에 사용된 어휘 분포를 통해 영어권과 한국어권 사회문화 간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인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휘개념지도 구축 방법을 일반 도서에도 적용해서 어휘개념지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번역서와 비번역서 간의 어휘 의미 계층 특징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며, 문학 번역이나 어휘 학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혁, 옴김 (2018) 「영어 성경 번역의 역사」, 『성경원문연구』 42: 173-199.
 (Steenbergen, Gerrit J. van (2011) ‘Translations, English’, M. D. Coogan (ed.)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Books of the Bible, New York: Oxford UP, 435-449.
 나연서 (2017) 「아동 도서 그림책 영한 번역에 나타나는 제목의 구조: 통시적

- 양상과 언어학적 고찰, 『번역학연구』 18(1): 7-40.
- 문금현 (2011)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7-47.
- 시정곤 (2005) 「한국어 어휘망을 바탕으로 한 개념 지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9: 145-163.
- 신현숙 (2001) 『한국어 현상과 의미 분석』, 서울: 경진문화사.
- 여상화 (2009) 「한영 모바일 번역기를 위한 강건하고 경량화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4(2): 191-199.
- 원영희 (2000) 「한글성경 번역상의 변화연구」, 『번역학연구』 1(2): 89-109.
- 유양우, 김현규 (2020) 「응집도 점수 기반의 키워드 추출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화형 형태소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12): 145-153.
- 윤애선, 황순희, 이은령, 권혁철 (2009) 「한국어 어휘의미망 korlex1.5의 구축」,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6(1): 92-108.
- 윤평현 (2013) 『국어의미론 강의』, 서울: 역락.
- 이보림 (2017) 「영한 성경의 기본 어휘 비교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8(3): 5-28.
- 이성준 (1999) 『홈볼트의 언어철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수만 (2011)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과 한글 성경 역본들」, 『성경원문 연구』 28: 170-203.
-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57-65.
- 이용훈, 이규형, 김하웅 (2015) 「표준화된 타입-토큰 비율, 어휘성장곡선, 그리고 영어교재분석」, 『영어학연구』 21(2): 1-20.
- 이인근, 최기선, 황도삼, 함영균 (2014) 「한국어 오픈 워드넷(KWN): 사전 기반의 반자동 구축」, 『제26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HCLT.
- 이종원, 김태현, 최광남 (2020) 「NTIS 시스템에서 딥러닝과 형태소 분석 기반의 대화형 검색 서비스 설계 및 구현」, 『융합정보논문지』 10(12): 9-14.
- 임지룡 (1992) 『국어 의미론』, 서울: 탐출판사.
- 임지룡, 윤희수 (2008) 『의미 관계와 어휘 사전: 반의 관계, 동의 관계, 기타 계열들』, 서울: 박이정.

- 전택부 (1980) 「기독교와 한글」, 『나라사랑』 36: 130-144.
- 조남호, 윤석민 (2012) 『언어와 의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최현배 (1980)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 51-76.
- 허명수 (2014) 「성경번역의 용인성: 셰익스피어 시대의 제네바성경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301-329.
- 홍기욱 (2014) 『바다 생물어의 의미장 구축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Del Corro, Anicia (2003) ‘Why So Many Bible Versions.’ *성경원문연구* 12: 176-203.
- Ji, Li-Jun, Zhiyong Zhang and Richard Eugene Nisbett (2004) ‘Is it culture or is it language? Examination of language effects in cross-cultural research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1): 57-65.
- Laufer, Batia and Paul Nation (1995) ‘Vocabulary Size and Use: Lexical Richness in L2 Written Production’, *Applied Linguistics* 16: 307-322.
- Lehrer, Adrienne (1974) *Semantic Fields and Lexical Structure*,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Miller, George Armitage (1995) ‘WordNet: A Lexical Database for English’, *Communications of the ACM* 38(11): 39-41.
- Miller, George Armitage (1998) *WordNet: An electronic lexical database*, MIT press.
- Miller, George Armitage (2003) ‘The cognitive revol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3): 141-144.
- Murphy, M. Lynne (2003) *Semantic relations and the lexicon: Antonymy, synonymy and other paradigms*, Cambridge UP.
- Nida, Eugene Albert and Charles Russell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 Qi, Peng, Yuhao Zhang, Yuhui Zhang, Jason Bolton and Christopher D. Manning (2020) ‘Stanza: A Pyth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oolkit for Many Human Languages’, In *Proceedings of the 58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ACL) System Demonstrations. 101-108.

Zurlo, Gina A., Todd M. Johnson and Peter F. Crossing (2021) ‘World Christianity and Mission 2021: Questions about the Future’,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45(1): 15-25.

성경 문헌

개역개정판 (1998) 서울: 대한성서공회.

우리말성경 (2005) 서울: 두란노서원.

NASB (2020) New American Standard Bibel, The Lockman Foundation.

NIV (2011) New International Version, Biblica.

분석 도구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엑소브레인 Available at <https://aiopen.etri.re.kr/>.

Stanford PosTagger Available at <https://nlp.stanford.edu/software/tagger.html#Download>.

KorLex 한국어 어휘의미망 Available at <http://korlex.pusan.ac.kr/>.

Wordnet 영어 어휘의미망 Available at <https://wordnet.princeton.edu/download>.

Anthony, Laurence (2019) AntConc Version 3.5.8 Computer Software, Tokyo, Japan: Waseda University. Available at <http://www.antlab.sci.waseda.ac.jp/>

인터넷 자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9. 5. 28) 「아동 제공용 콘텐츠 언어 수준 검증 보고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21년 7월 23일 검색.

한국궤립 (2021. 4. 7)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한국궤립조사연구소』 2021년 7월 20일 검색.

김래용 (2012. 9. 14) 「우리 성경은 어디에서 왔는가?(1)-김래용 교수」, 『협성대 교수논단』 2021년 7월 26일 검색.

[Abstract]

Concept Maps and Semantic Fields of Christian Bibles

Na, Yeon Se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xical concept distribution of nouns in the Scriptures of the Christian Bibles. Tools such as the morpheme analyzer, lexical-semantic network, and semantic field are used to construct a concept map of Bibles. Nouns are first extracted using a morpheme analyzer and analyzed with a lexical-semantic network. They are then organized hierarchically to construct a concept map. Through a concept map of the book of Obadiah, several semantic fields are generated. The concept map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he lexicon of each version of the Bible at a glance. Furthermore, anyone can objectively create a semantic field for specific aims using the concept map by collecting words in the same category. A variety of lexical translations can also be identified through observations of the vocabulary in the same semantic field appearing in the four versions of Bibles. Concept maps and semantic fields of biblical scriptures have several potential applications. They can serve as reference materials for translators, as a glossary for English and Korean language educators, and in future revisions or retranslations of the Bible.

▶ Key Words: morpheme analyzer, concept maps, Bible translations, semantic fields, type token ratio

▶ 주제어: 형태소분석기, 어휘개념지도, 성경번역, 의미장, 타입 토큰 비율

나연서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수료

nayeonsoo@gmail.com

관심분야: 통사론, 음성학, 성경번역, 영어성경, 어휘분석

논문투고일: 2021년 8월 3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